

4000송이의 꽃

아이야, 정유의 일을 기억하느냐.

그해 팔 월 두 번째 붉은 노을이
기어코 남원에 내려앉을 때
성 안의 꽃들이 조용히 숨을 모은
그날을 기억하느냐.

성 밖의 돌풍 소리는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고
부서진 성벽 틈으로
저릴 듯한 붉은 냄새가 퍼진
그날을 기억하느냐.

전라의 마지막 길목을 지키려
여린 풀꽃들이 서로 등을 맞대던 밤.
누군가는 활시위를 끝내 놓지 못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끝내 삼켜야만 했던
수많은 말들을 기억하느냐.

새벽이 오기도 전
무너진 남원의 심장에서
연기처럼 흩어진 수많은 이름.

아이야, 기억해야지
끝내 부서진 성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아무리 거친 바람과
자갈밭의 환경에서도
기어코 작은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